

6·25전쟁 참전과 나라 사랑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신 동 소

6·25전쟁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은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의 영령과 6·25 참전용사의 희생에 토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한낱 사건으로 잊어가는 마당에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수기를 쓴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끝났지만 6·25는 잊혀진 전쟁일 수 없으며 아직도 생생한 현실이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게 된다’는 말처럼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6·25전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이 조국을 지킨 국군의 희생과 애국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비극이 설사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더라도 우리는 조국을 지킨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금년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된다. 6월 25일 새벽 38선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의 서울시내에 입성까지 불과 3일 만에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0년 8월 중순 경 긴박한 상황에 남한 땅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호남에 주둔한 국군이 철수하고 인민군선발대는 왜관, 포항, 마산에 진입하였으며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남한은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상황에 서울대학교에서도 휴교령을 내려 많은 재학생들이 군에 입대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영령들이 많았으며 삼가 명복을 빌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된다. 이 누란의 위기에 김종원 경남계엄사령관은 학교 교장선생님께 지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군 소집에 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전쟁으로 혼란과 급박한 상황에 나는 모름지기 조국의 부름에 응하였다.

내가 입대(1950. 9. 1) 후 1개월간의 교육기간 중에 유엔군과 해병대가 드디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그 기세를 몰아 9월 28일 새벽 중앙청에 태극기를 달았으며 마침내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찾았다. 국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1950년 10월 21일 유엔군과 함께 평양에 입성하여 10월 26일 압록강에 태극기를 꽂자 전세가 아군에게 유리해 졌으며, 그제서야 학도병으로 교육을 마친 신병들은 다소 안도감을 가졌다. 그런데 인민군의 저항은 예사롭지 않아 전세는 희비가 엇갈려 치열한 격전으로 국군의 희생이 많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즈음에 나는 8사단 (10, 16, 21연대) 10연대 배속을 받아 소속부대에 신고 차 대구를 거쳐 서울을 지나 경기도 가평, 포천을 거쳐 10연대가 진격하는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를 지나는 도중, 포연과 부상자의 신음 소리가 흘러넘치던 것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참으로 전쟁터에서는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머칠을 보내고서야 1950년 10월 중순경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평안북도 어느 곳인가 도착하여 배속부대에 신고를 마쳤으며 전투는 치열하였고 전세는 아군이 불리하게 된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1950년 10월 19일에 중공군 15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왔다고 하며 10월 25일 중공군과 첫 번째 전투가 벌어져 우리 8사단도 이때 대치하게 되었다. 소속 10연대가 평안북도 희천을 막 진주한 10월 28일 밤 중공군이 야음을 타서 인혜전술로 피리소리, 딱콩 소리를 내며 밀려와서 선잠을 깨어 서둘러 부대가 밀집한 곳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칠후 같은 야밤이라 방향도 분간할 수 없었으며, 중공군이 공격하는 위치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중공군이 인혜전술로 에워싸 접근해 오며 더구나 아군끼리의 식별도 어려웠다. 가을걷이한 짚단더미에 불을 붙여 환하게 밝혀 현대전의 소이탄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전진해오는 바람에 지휘관은 작전지시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윽고 백병전이 벌어져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야간기습을 당한 8사단 10연대 고근홍 연대장과 대원의 희생이 많았으며 아직도 생사가 묘연하다. 그 전투에서 산화한 전우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순국을 잊지않고 있다.

나는 그 전투상황에서 순식간에 포위를 당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아군은 뿔뿔이 헤어졌으며 우왕좌왕 하는 사이 난데없이 총알이 날아 와 왼쪽 둔부에 박혔다. 부상을 당한 몸에 고립무원으로 온 밤을 지새워 기진한 몸으로 홀로 나무지팡이에 의지하여 묘향산을 넘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총이라 믿는다.

그 후 극적으로 야전병원에 임시 수용되고 이어 평양역 근처 바람이 승승 들어오는 폐허가 된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내다가 서울 경복중학교 교실에도 머물고 그 다음날 18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거기서 둔부에 박힌 실탄을 제거하였다. 전세가 급변하여 정부가 1951년 1·4후퇴로 부산으로 철수하게 되고 18육군병원도 부산으로 환자를 먼저 수송시켜 병원 치료가 일절 중단되었다.

나는 학도병으로 입대한 몸이라 둔부의 심한 상처부터 치료받는 것이 급선무였으므로 귀가 하였다. 당시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후 군으로부터 아무 귀대조치도 없었다. 이런 결과로 6·25전쟁 중에 총상을 입고 생환하였지만 국가가 공인한 신분은 갖지 못하여 참전용사라고 내세울 수 없었다. 이 일로 인하여 늘 고뇌와 아쉬운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복학하고 대학 졸업까지 7년이 지난 다음 경기도 병무청으로부터 입대(1957. 6. 29) 영장을 받아 다시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후회 없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제대 하여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명예를 회복하여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그 후 58년 동안 마음에 담아온 6·25참전 사실에 대해 병적확인 작업을 국방부에 문의하게 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참전용사 및 국가유공자 신청자격을 통고 받아 서울지방병무청을 거쳐 서울지방보훈처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2008년 7월 31일

‘참전유공자증서’와 11월 11일 ‘국가유공자증서’를 받게 되었다. 이제 비로소 남은여생을 국가유공자로 떳떳이 살게 되었다.

6·25전쟁은 참혹한 민족사에 큰 비극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갔지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살아가는 데는 우리국민 모두가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있으므로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내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충렬과 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야 한다.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국가관과 민주시민의 자세를 갖추는 교육이념과 거리가 먼 교육을 시킨다는 보도가 있다.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리고 간 어처구니없는 사실과 심지어 국기에 대한 경례, 병역의무를 거부하라고 가르쳐 학부모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왜곡된 교육으로 초등학교 상당수가 6·25전쟁은 조선시대의 전쟁 또는 일본과의 전쟁으로 알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일부는 미국을 주적으로 알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더욱 요즘 젊은이들은 꿈과 낭만을 그리며 자유롭게 자라 나라의 고마움과 특히 안보에 있어서 남의 나라일로 생각하니 심히 걱정스럽다. 나라는 나와 내 조국을 지킨다. 이 나라 청소년들은 현재와 미래의 주역이다.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나라 사랑의 주역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애국은 바로 나라의 안위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라의 세속오계의 정신 곧 견위수명의 정신갑주가 현재에도 청소년들에게 요구된다. 6·25 전쟁은 정전이 아니고 살아있다. 대한민국은 248km 휴전선에 따라 200만 인민군과 대치중이며 북한은 특수부대 18만 명이 남한에 침투대기예다가 수많은 대포와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현실이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라틴어 격언에 ‘시 비스 파첼 파라 벨룸(Si vis pacem para bellum)’ 즉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한다는 말로써 남북이 대치 중에 있는 우리국민을 향하여 고하는 말이다. ‘6·25를 잊으면 6·25는 다시 온다’는 경구, ‘6·25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 만이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말은 금언이다. 나라 사랑 교육이야말로 나라 발전에 토대가 되며 교육의 중심에 인성교육이 기본이다. 급변하는 사회에 소중한 인성교육은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력을 높이게 된다. 우리는 과거 못살았던 나라에서 남의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으며 자유와 정의를 위해 세계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데 반면 교사가 주는 글귀 즉 어느 ‘UN참전용사의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고, 만나보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말이 감동을 준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진운은 나라를 지키는 보위와 애국심 그리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에 달려있다.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일 수 없으므로 나라 사랑 교육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제 팔순을 맞이하니 주마등처럼 변화무쌍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니 감사한 마음뿐이다.